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틱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구원의 마운드'가 팀타율 꼴찌의 KIA를 구원하고 있다.

3위 KIA 타이거즈는 0.254의 팀 타율로 부문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구톰슨(평균자책점 2.68), 양현종(〃 2.88), 로페즈(〃3.42)가 버티고 있는 마운드는 3.68의 평균자책점으로 SK(3.63)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내내 팀 타율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철벽 마운드 덕에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전반적으로 '타고투저'가 뚜렷한 올 시즌 KIA는 극명한 '투고타저'의 상반된 행보를 하고 있다.

투·타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KIA에 반해 '벌떼 마운드'와 '화수분의 야구'로 대표되는 SK와 두산은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1·2위 다툼을 하고 있다.

SK와 두산은 각각 3.63(1위)과 4.06(3위)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 팀 타율과 득점도 전체 2위(0.281, 395점)와 4위(0.278 376점)를 달리고 있다.

2008시즌 초반에도 KIA는 '투고타저'가 두드러졌다.

마운드의 선전 속에서도 타선이 제때 터지지 않으면서 답답한 4월을 보냈던 KIA는 안방마님 김상훈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투·타의 동반침체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개막전 양상도 비슷했다. 지난해 에이스 윤석민과 한국 무대에 첫 선을 보인 '빅리거' 리마·서재응이 나란히 마운드에 출격했지만 개막전 역전패 이후 3연패를 기록했다. 올해도 윤석민이 선발로 나선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당한 뒤 양현종·구톰슨이 연속해서 패전 투수가 되면서 3연패로 시즌을 시작했었다.

이후 투·타의 엇갈린 명암 속에 시즌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적은 딴판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마운드 전력이 그 비결이다.

믿었던 용병 리마가 신통치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구톰슨-로페즈는 KIA의 특급 용병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 좌완 유망주에 머물렀던 전병두를 대신해 양현종이 좌완 에이스로 거듭났다. 1년 사이 몰라보게 큰 곽정철·손영민·박경태 등도 불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투수들의 동반 부진이 없다는 것도 타선의 긴 침묵 속에서도 3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마운드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구원 투수'가 등장하고 있다.

갑작스런 선발 공백이 있을 때 임준혁·진민호 등이 임시 선발로 나서 자리를 지켜줬다. 지난주 윤석민의 공백으로 4연패의 위기에 몰렸던 KIA는 환상의 코너워크로 무장한 이대진의 깜짝 호투에 연패 사슬을 끊었다. 마무리 한기주가 휴업에 들어갔을 때는 노련한 유동훈이 불펜을 진두지휘했다. 조범현 감독이 유동훈의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걱정했던 지난주에는 '환골탈태'의 곽정철이 불펜의 에이스로 맹활약했다.

위기마다 등장하는 '구원투수'들의 활약이 KIA의 3위를 지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의 질주

〈지애〉

내일 LPGA 코닝클래식 참가

오초아와 투어 상금왕 격돌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와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29일(이하 한국시간) 웨그먼스LPGA 우승으로 시즌 2승과 함께 상금 랭킹 선두로 올라선 신지애는 2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나흘간 열리는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상금왕 지키기에 나선다.

신지애는 시즌 상금 100만1천139달러를 쌓아 2위 크리스티 커(미국·84만507달러), 3위 청야니(83만2천621달러)를 따돌렸고 5위 오초아(71만1천105달러)와 29만34달러 차이를 유지했다.

총상금 140만달러에 우승 상금 21만달러가 걸린 이번 대회에서 신지애는 그동안 애를 먹였던 퍼트가 안정을 찾으면서 상금왕 경쟁자들과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커와 청야니의 추격도 매섭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선수가 오초아다. 오초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신지애를 따라잡을 수 없지만 아직 시즌 중반이라는 점에서 신지애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신지애는 올 시즌 12개 대회에 출전, 45개 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60대 타수를 20차례나 기록했고 페어웨이 안착률 83%(공동 1위), 그린 적중률 73%(3위), 평균 타수 70.29타(5위) 등 지존의 샷을 날리고 있다. 더욱이 30위 밖으로 밀렸던 평균 퍼트 수도 웨그먼스LPGA 대회를 계기로 29.18개(공동 23위)로 줄이면서 1인자의 자리를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반면 오초아는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1위(70.03타)를 지키고 있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이 69%에 머물고 있고 그린 적중률도 간신히 70%를 넘기는 등 화려했던 2007년과 작년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세리는 이 대회 1998년과 1999년 연속 우승에 이어 2001년과 2003년, 2007년에도 정상에 올라 모두 5개의 우승컵을 가져갔다. 박세리가 다시 우승하면 미키 라이트(시아일랜드 오픈 5승), 안니카 소렌스탐(미즈노 클래식 5승)을 뛰어넘어 단일 대회 6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와 함께 위성미(20)와 올 시즌 1승씩을 챙긴 김인경(21)등도 출전해 우승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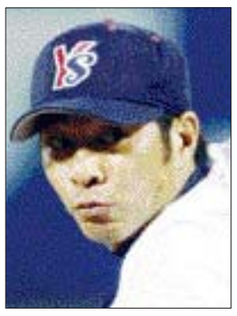
"160km 뱀직구 뿌리겠다"

임창용 日 올스타전 출사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팬 투표로 올스타에 선정돼 일본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에 출전하는 임창용(33·야쿠르트 스왈로스)이 "올스타전에서 시속 160㎞짜리 광속구를 던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스포츠호치 등 일본 스포츠신문 인터넷판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이 160㎞짜리 뱀직구를 약속하면서 '한국 야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임창용은 "팬 투표로 올스타에 뽑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후지카와 규지(한신), 이와세 히토키(주니치) 등 일본 마무리 투수들을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팬 투표로 마무리 투수 1위를 차지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일본 진출 2년째인 올해 임창용이 일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세 가지다.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본과 결승에서 스즈키 이치로(시애틀)에게 통한의 2타점 적시타를 맞은 게 첫 번째 장면이다. 두 번째는 요미우리 소방수 마크 크룬(162㎞)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빠른 시속 160㎞를 두 번이나 찍은 사건이다. 지난달 16일 한신과 경기에서 임창용이 개인 최고인 157㎞를 넘어 160㎞를 찍자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었다.

마지막은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답게 평균자책점 0의 행진을 벌인 것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임창용은 올해 30경기, 30과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을 1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 12개 구단 마무리 투수 중 평균자책점이 0인 선수는 임창용 뿐이다. 한여름이 되면 구속이 더 올라갈 것이라던 임창용은 "컨디션만 좋으면 올스타전에서도 160㎞를 던질 수 있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2군 18일 올스타전

춘천 의암야구장 무료 입장

프로야구 2군 퓨처스 올스타전이 오는 18일 춘천 의암야구장에서 열린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남부리그(KIA, 롯데,삼성,한화,경찰)와 북부리그(LG,두산,SK,히어로즈,상무)로 나뉘어 열리며 구단별로 각 4명씩 20명(투수 6명, 포수 2명, 내야수 2명, 외야수 5명, 지명타자 1명)이 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전년 승률상위팀인 남부리그는 롯데 양상문 2군 감독이, 북부리그는 김영직 LG 2군 감독이 맡는다.

출장자격은 13일자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중 입단 5년 차 이하 선수에게만 주어진다. 신고선수는 출장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올스타전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홈런레이스와 팬사인회가 식전 행사로 열리며,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 할 경우 경기는 무승부로 처리된다.

퓨처스올스타 MVP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우수투수상과 우수타자상에게도 각각 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야구 유망주들의 잔치인 퓨처스 올스타전은 2007년부터 3회째 춘천에서 열리고 있으며 관람을 원하는 야구팬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